

편집후기(編輯後記)

63집을 시작으로 11기 편집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담당 편집이사로서 10기 편집위원회의 상세하고 자세한 인수인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실수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흔쾌히 도움을 주신 10기 편집위원회 선생님들과 11기 편집위원회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저에게 과분한 책무를 주신 것 같아 이를 상쇄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한다고 하였으나 학회지가 한 번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업무와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1기 편집위원회의 시작과 함께 그 첫 호로 간행된 이번 63집은 일본어교육, 형태론, 어사 및 사회언어학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13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연구자분들을 만날 텐데요, 아무쪼록 연구하시는 데에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한 귀한 연구 성과와 옥고를 보내주신 투고자 선생님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멋진 팀워크로 든든한 내편이 있음을 보여주신 우리 11기 편집위원회 위원장님과 편집이사님들께 거듭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尹)